

한국 대중가요가 노래해온 죽음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

김세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유옥란(백석문화대학교 실용음악과 강사)***

1. 들어가며
2. 한국 대중가요가 노래한 죽음의 역사
 - 2.1. 나라 잃은 허무 속 순애(殉愛)의 탐닉
 - 2.2. 제국주의라는 종교를 위한 순교(殉敎)의 찬양
 - 2.3. 조국을 위한 순국(殉國)의 추모
3. 나가며

본 연구는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 속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변화와 대중의 정서를 대변해 온 대중가요

* 이 연구는 2022.12.3. 제31회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연구의 방향성과 통찰을 끌어내 주신 학술대회 좌장님과 부족한 연구에 학술적 가치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1 저자

*** 교신저자

는 역사를 통해 죽음을 끊임없이 변주해 왔다. 죽음의 찬미로 시작된 한국 대중가요 역시 100년의 역사 속 질곡의 분기점마다 죽음에 대한 관점과 노래 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대중가요 등장 시기 국권 상실의 허무감은 개인적 순애의 애도로, 군국주의 심화기에는 친황을 위한 순교의 찬양으로, 광복에서 6.25 전쟁을 통해 에 이르는 시기에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를 위한 순국의 추모로 발현되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우듯, 코로나19의 창궐로 죽음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기에 대중가요가 죽음을 노래해온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변화는 물론, 사회가 인식하는 죽음의 단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심어: 한국 대중음악, 대중가요, 죽음, 역사, 코로나19.

1. 들어가며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고대로부터 불러온 노래 속에는 죽음에 관한 염두가 있었다.¹⁾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생명을 관장하는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숭배를 노래로 발현시켜 온 전통에 따라 죽음은 노래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온 것이다(김세훈, 이영주, 이환수, 2019: 122). 인류 역사의 환란기에 대중문화와 예술은 죽음에 더욱 주목하였고, 중세 유럽의 역병과 전쟁은 바니타스(Vanitas)²⁾라는 미술사조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정현이,

1)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인 「공무도하가」, 「제망매가」는 물론, 그리스 비극, 이집트의 「인테프를 위한 노래」 등 고대를 대표하는 노래에는 죽음을 단골 소재로 채택하고 있다.

2) 성경 전도서 1장 2절(공동 번역)의 '헛되고 헛되다' 구절의 라틴어 'Vanitas Vanitum'에

2011: 73-75; Walter, 2012: 75). 이는 단지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죽음은 음악 분야에도 중요한 소재가 되었으며(오지현, 나주리, 2018: 12-13), 재난·전쟁·역병 등 사회적 큰 슬픔의 상황에서 대중은 음악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극복의 힘을 얻었다(Dell, Hickey, 2017). 사회의 변화와 대중의 정서를 대변해 온 대중가요 역시 역사를 통해 죽음이라는 소재를 끊임없이 변주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초의 노래 중 하나이자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대중가요의 붐을 불러일으켰던 〈사(死)의 찬미〉가 바로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손민정, 2009: 38-39).³⁾

언어로 구성된 다양한 창작물 중에서 대중가요는 대중문화의 가장 첨단에 있는 장르이다. 대중가요는 대중의 정서에 부합된 가사를 통해 공감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 대중성이라는 상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대중의 관심을 노랫말 속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강민구, 2019: 89; 장소원, 2015: 309). 따라서 대중가요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김창남, 1998: 43), 대중가요가 대중의 감정과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가

서 유래한 용어로 16~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정물화의 한 장르이다. 바나타스 정물화는 흑사병, 종교전쟁 등 비극적 경험에서 탄생한 예술적 산물로 인생의 유한함과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모래시계, 썩어가는 과일과 꽃, 촛불 등이 주요 소재가 된다.

- 3) 「사(死)의 찬미」(윤심덕 노래)가 최초의 한국 대중가요라고 단언하기에는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국 대중가요 형성 극초기의 노래라는 사실은 물론,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유포되는 것이 대중음악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유부남과의 정사로 인한 동반자 살이라는 가수의 충격적인 사연과 이에 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이 죽음기 보급의 촉매가 되었다는 배경은, 이 노래가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역할을 담당함에 무리가 없게 한다.

요는 시대 및 사회연구의 소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나타나는 죽음에 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언어가 가지는 불변의 특성은 ‘언어는 변한다’라는 사실이다(이향천, 2015: 309). 언어로 구성된 모든 창작물 역시 - 표현의 방식이든, 단어의 의미든, 혹은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인식이든 -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라는 요인이다. 언어는 한 개인만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의 자산이다. 이는 언어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에 있기 때문이다(Labov, 2010). 언어는 사회변화의 가장 민감한 척도라는 명제를 비취볼 때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대중의 관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중가요 노랫말의 시대별 의미 변화에 관한 분석은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써 연구됐다. 추병식(2015)은 대중가요 노랫말 속 낭만적 사랑에 주목하여 1990년대와 2010년대의 인기 대중가요를 현상학적으로 해석 및 비교한 결과, 헌신적 사랑과 근대적 가부장 체계에서 개인화된 사랑과 탈근대적 가부장 체계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장소원(2015)은 한국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에 포함된 어휘와 종결형식의 문체적 특성 분석을 위해, 주요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대중의 관심사 변화를 진단하고, 문체의 변화를 검토하여 언어사용 행태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한편, 장미현(2020)은 1970~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트로트 노랫말에 나타난 호칭 및 지칭어를 비교하여 관계적 호칭의 감소 대신 개인적 호칭의 증가와 애정 표현의 적극화된 변

화를 확인하였다. 정기인(2020)은 1980~2010년대 여성 솔로 가수가 부른 ‘떠나는 남성과 남겨진 여성’에 관련된 이별의 노래 속에서 나타난 여성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시대에 따른 대중가요의 노랫말 변화는 여러 관점과 시기 및 주제별로 활발히 연구는 반면,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제기한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와 함께 대중의 정서를 대변해 온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그 표현의 방식과 관심사, 그리고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게다가 한국 대중가요 역명의 시기에 폭발적 대중화를 이끈 〈사의 찬미〉에서부터 시작된 죽음에 관한 대중의 관심 또한 시대의 굴곡과 변화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 속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탐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 수많은 사건에서 대중의 심상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라는 역병의 창궐로 삶과 죽음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기⁴⁾에 대중가요가 어떠한 관점과 형식으로 죽음을 노래해 왔는지를 회고하는 것은 대중가요를 누리는 대중의 관심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내밀한 입장을 들여다봄은 물론 한국 사회가 인식하는 죽음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다.

4) 연간 사망자 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수치상으로 이전보다 죽음을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 2019년 29만 5천여 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여 명, 2021년 32만여 명, 2022년 37만여 명으로 급상승하였다. 이를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2019년 5.7명에서 2022년 7.3명까지 증가한 것이다.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연구 범위는 1920년대 중반 한국 대중가요의 태동기부터 전후(戰後) 재건기인 1950년대 말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죽음을 소재로 하는 한국 대중가요에 관한 최초이자 탐색적 연구로, 한국 대중가요 역사 전체라는 방대한 역사와 자료를 짚은 연구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국 대중가요 역사의 초창기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와 국권 상실의 고통 속에서 1920년대 탄생한 한국 대중가요의 태동부터,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국가적 환란으로 인한 암흑기를 지나 재건의 발판을 다진 1950년 말까지의 시기에 대중에게 사랑받고 대중가요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기념비적인 곡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구분은 장유정·서병기(2015)와 박찬호(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개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1920년대 중반 한국 대중가요의 초창기⁵⁾부터 황금기를 맞이한 1930년대 말까지를 ‘제1기’로,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일본에 의해 대중가요가 통제당한 대신 군국가요를 강요당한 1945년 종전까지를 ‘제2기’로, 8.15 광복으로 자유를 회복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중가요의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를 지나 회복의 기틀을 모색했던 1950년대 말 전후 재건기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한국에서 첫 상업음반이 발매된 시기는 1907년이나, 현대 대중가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유행 창가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음반은 1925년 발매된 <이 풍진 세월 (박채선, 이류색 노래)>인 만큼 이 시기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판단하였다.

〈표-1〉 연구를 위한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의 시기적 구분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시기	1920 ~ 1930년 말	1940 ~ 1945년 광복	1945 광복 ~ 1950년 말
주요 사건	식민 통치 공고화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사회적 분위기	국권 상실의 절망과 슬픔	군국 통치, 전시체제	전쟁으로 인한 상실·이별
장유정· 서병기 (2015)	태동기(1907-1929) 형성기(1930-1940)	암흑기(1941-1944)	재건기(1945-1957)
박찬호 (2009)	초창기 (1920중-1930초) 황금기 (1930초-1940초)	수난기(1940-1944)	1945-1950 말
선정 가요	〈사의 찬미(1926)〉 〈봉자의 노래(1934)〉 〈병운의 노래(1934)〉 〈두 목숨의 저승(1936)〉	〈지원병의 어머니(1941)〉 〈군사우편(1942)〉 〈아들의 혈서(1942)〉 〈결사대의 아내(1943)〉	〈전우여 잘 자라(1950)〉 〈단장의 미아리 고개(1955)〉 〈아내의 노래(1951)〉

시기별 죽음을 주제로 한 노래 선정에 있어서 노랫말에 죽음을 명시하는 노래뿐 아니라, 죽음을 간접적인 은유로 표현한 노래 역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대중가요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명 가수가 부르고 많은 이에게 사랑받은 노래,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노래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중가요사의 주요 연구자(장유정, 이영미, 박찬호, 김창남 등)의 저서와 연구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대중가요 중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곡을 추출하였다. 대중가요 제작자 또는 가수 등 전문가 5명과의 2차례에 걸친 FGI를 통해 죽음을 소재로 한 시대별 대표곡을 선정하였고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6)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인기 순위 등 구체적 지표가 없어 대표적 저서와 연구에 서 추출한 가요를 대상으로 대중가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표-2〉 전문가 FGI 명단

구분	전문 분야	학위	나이
A	영화음악, 국악, 제작	학사	48
B	대중음악, CCM 제작	석사	47
C	재즈 보컬, 대중음악	박사	밝히지 않음
D	대중가수	박사 과정	33
E	대중가수	학사	30

선정된 노래의 가사는 네이버 및 멜론 사이트의 가사 검색을 통해 전사하였고, 이 가사들이 어떠한 죽음을 표현하며, 시대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가 노래한 죽음의 역사

2.1. 나라 잃은 허무 속 순애(殉愛)의 탐닉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란이 있으나 대중적인 인기 가요의 시초⁷⁾라고 할 수 있는 윤심덕의 〈사의 찬미(1926)〉는 제목에서부터 죽음을 내세우고 있다(조장원, 2018: 197-198). 죽음을 찬미하는 가사, 그리고 유명 여성 성악가와 유부남의 정사(情死), 즉 동반자살이라는 자극적인 사건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

7) 1925년 발매된 <이 풍진 세월(박채선, 이류색 노래)>이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발매 음반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불과 1년 후 발매되었으며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축음기의 보급을 통한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서 <사의 찬미>는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의 기념비적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켰고, 국권을 잃은 조선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는 대중이 허무를 노래하는 이 노래에 열광하게 하였다(박찬호, 2009: 199).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협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
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
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엔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 Iosif Ivanovici 작곡, 윤심덕 작사 <사의 찬미(1926)>

일본 대중문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과잉된 감정의 신파조 가요의 인기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이동순, 2007: 229-231). 이는 카와카미 오토지로(川上音二郎, 1864-1911)가 창시한 신파극이 당시 일본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최신의 문화적 유행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신파의 정신세계가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일제의 판단이 있었다(이승희, 2006: 15-16). 나아가 일본에서는 에도시대(1603-1867)부터 이미 순애(殉愛)를 소재로 한 정사(情死)문화가 대중화를 이루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문화현상이자 콘텐츠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일본의 문화가 수입되어 최신 유행을 선도하던 당시 일제 강점기 한반도 상황에서 정사는 대단히 매력적인 소재였

다(菅野聰美, 2001; 서지영, 2010).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자유연애 풍조가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일부일처’ 제도에 편입하지 못하고 좌절된 연애의 최후 선택이 바로 순애임을 〈사의 찬미〉는 보여준다.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이자 유부남인 김우진은 이를 수 없는 사랑을 비판하며 대한해협에 몸을 던졌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윤심덕이 남긴 노래가 바로 〈사의 찬미〉였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라는 가사를 짓고 부른 이가 직접 그 가사를 실친한 사건은 나라를 빼앗긴 대중의 깊은 절망과 슬픔을 자극함으로써 〈사의 찬미〉는 폭발적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 대중가요가 태동하던 시기 대중은 ‘바니타스(Vanitas)’에 열광했다.

순애의 사건은 카페⁸⁾의 여급인 김봉자와 유부남 의사였던 노병운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세 곡의 가요가 만들어진다(길진숙, 2009: 82). 당시의 정서상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륜에 괴로워하다 한강에 투신한 김봉자에 이어 노병운 역시 스스로 삶을 포기했던 사건은 당시 매일신보에 “연인 봉자의 뒤를 따라 노병운도 한강 작혼 - 천국에 사랑을 맺으렘인가(1933년 9월 29일)”라는 기사로 화제가 되었다(장유정, 2006: 308-312). 이 사건은 윤심덕의 사건만큼이나 큰 충격과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봉자의 노래〉, 〈병운의 노래〉, 〈두 목숨의 저승길〉 등 무려 세 곡의 노래로

8) 카페는 일본화된 서양 문화가 이식된 유흥공간으로, 전통적 유흥공간이었던 요릿집의 기생 문화를 대체한다. 카페에서는 커피뿐 아니라 각종 양주, 서양 음식, 재즈 음악 등 각종 서양 문화를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폭발적 인기를 구가하였다. 카페의 여급은 기존의 기생, 창기와 비교하면 교육받은 지식인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유로운 근무 조건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특징을 갖는다(오은아, 2020: 192).

재생산되어 대중에게 회자되었다(장미경, 2015: 64).

사랑의 애달픔을 죽음에 두리 모든 것 잊고 잊고 내 홀로 가리/ 살아서
당신 아내 못 될 것이면 죽어서 당신 아내 되어지리다/ 당신의 그 이름을
목 메여 찾고 또 한 번 당신 이름 부르고 가네/ 당신의 굳은 마음 내 알지마
는 괴로운 사랑 속에 어이 살리요/ 내 사랑 한강 물에 두고 가오니 천만년
한강 물에 흘러 살리다

- 유도순 작사, 이면상 작곡, 채규엽 노래<봉자의 노래(1934)>

영겁에 흐르는 한강의 푸른 물 봉자야 네 뒤 따라 내 여기 왔노라/ 오
임이여 그대여 나의 천사여 나 홀로 남겨 두고 어데로 갔나/ 수면에 날아드
는 물새도 쌍쌍 아름다운 한양의 가을을 읊건만/ 애끓는 하소연 어디다
사되리 나의 천사 봉자야 어데로 갔노/ 그대를 위하여서 피까지 주었거던
피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사랑/ 한강 깊은 물 속에 임 뒤를 따르니 천만년
영원히 그 품에서 안어 주

- 김동진 작사, 고가 마사오 작곡, 채규엽 노래<병원의 노래(1934)>

살면서도 살 수 없는 두 사람의 목숨이니/ 어디가서 사오리까 괴로워서
못 사오리/ 가오리다 두 목숨은 저승길을 가오리다

두 사람의 마음 약속 영영 아니 변하오리/ 살길 잃고 갈 데 없는 두
목숨의 운명이니/ 저승길을 아니 가고 어디 찾아 가오리까

죽어 가서 잘 살을지 누가 안다 하오리만/ 사는 것이 값없으니 죽어
없어지오리다/ 두 목숨의 저승길을 아니 가고 뿔 하리오

- 유도순 작사, 김준영 작곡, 채규엽 노래<두 목숨의 저승(1936)>

‘사랑의 애달픔을 죽음에 두리 모든 것 잊고 잊고 내 홀로 가리
<봉자의 노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봉자를 따라 ‘영겁에 흐르는
한강의 푸른 물 봉자야 네 뒤 따라 내 여기 왔노라<병원의 노래>’라

고 화답하며 병운은 순애를 실천한다. 결국 ‘두 사람의 마음 약속 영영 아니 변하오리/ 살길 잃고 갈 데 없는 두 목숨의 운명이니/ 저 승길을 아니 가고 어디 찾아 가오리까’라는 합창을 부르며 봉자와 병운은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이룬다.

이처럼 세 곡의 노래 전반에 담긴 표면적 주제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그러나 현세에서 이를 수 없는 사랑을 위한 종착역은 결국 죽음이요, 사랑하는 이를 따라 함께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룬다는 순애(殉愛)의 정신이 저변에 나타나고 있다.

2.2. 제국주의라는 종교를 위한 순교(殉敎)의 찬양

1930년대 말 일본의 군국주의는 극한으로 치달았고, 1937년 중일 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래 모든 대중가요는 대동아 공영권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조형근, 2017: 231). 이에 한국 대중가요계는 일제에 의해 군국가요(軍國歌謠)의 제작과 공연을 강요당했다. ‘군국가요’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하려는 의도로 상업적인 유행가의 생산·유통 과정을 통해 제작 및 유포된 노래로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일본 천황과 통치에 대한 찬양, 참전과 희생의 독려 등이 가사에 담겨있다(장유정, 2006: 333).

1937년 조선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필름 레코드 인정 규정’을 제정하여 가요를 선전 정책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였고,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군국가요가 대거 등장하였다(장유정, 2006: 333-337). 게다가 1940년부터는 모든 연예인에게 ‘기예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연예 활동을 위한 자격 검증 수단으로 연 2회 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심사의 내용은 전시체제 하 국민의 각오에 관한 작문과 〈군함 행진곡〉 연주 등 일본 통치에 철저히 복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박찬호, 2009: 592-593). 또한 당시 모든 무대공연은 일본식으로 연출해야 했고, 일본어 가사의 가창을 강요당했던 한국가요의 암흑기였다(장미경, 2015: 65). 태평양 전쟁의 고조에 따라 총력전 체제의 일제는 레코드사를 강제로 통폐합하고 일반 대중가요의 발매를 금지하는 등 대중음악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다. 대신 군국가요의 발표와 송출만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오직 ‘천황의 충성된 황국신민’으로서 제국주의라는 종교를 위한 순교(殉教)를 강요당했다.

군국가요의 특징으로는 첫째, ‘일장기’, ‘성수’, ‘대동아공영권’ 등 노골적인 친일의 단어에 비해 ‘반도’ 등으로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있다. 둘째,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는 일본제국과 천황에 대한 충성이 가사에 드러난다. 이는 이전 시기 순애의 대상이었던 연인이 충성의 대상인 국가(일본)로 치환되었음을 나타낸다. 사랑의 대상은 연인에서 국가로 변화하였으나, 그 대상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행위의 방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는 연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나라에 바치자고 키운 아들을 빛나는 싸움터로 배웅을 할제/ 눈물을 흘릴소나 웃는 얼굴로 깃발을 흔들었다 새벽 정거장

사나히 그 목숨이 꽃이라면은 저 산천초목 아래 피를 흘리고/ 기운차게 떨어지는 붉은 사꾸라 이것이 반도 남아 본분일 게다

살아서 돌아오는 네 얼굴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너를 반기며/ 용감한 내 아들의 충의 충성을 지원병의 어머니는 자랑해주마

군세계 나아가는 우리나라에 충후를 지키는 어머니들은/ 여자의 일편
단심 변함이 없이 님에게 바치리라 곧은 절개를

역시 일본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 반도 남아의 본분이며/ 그 죽음은
어머니의 자랑이다.

- 조명암 작사, 고가 마사오 작곡, 장세정 노래<지원병의 어머니(1940)>

<지원병의 어머니>는 일본 군국가요 <군국의 어머니(軍國の母, 1937)>를 번안한 것으로, 원곡의 가사가 대부분 직역되었다는 사실은 일제에 의한 노골적인 황국신민화 작업이 대중가요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박제홍, 김순전, 2015: 336-337), 이러한 군국주의의 적나라한 강요는 이후 군국가요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화자인 어머니에게 있어 내 나라는 일본이다. 그렇기에 일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요, 아들의 본분이자 어머니의 자랑이라 말하고 있다.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목숨 바쳐 전사하는 것이 명예롭게 여긴다. 그렇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배웅에 눈물이 아닌 웃는 얼굴로 깃발을 흔들었다. 그러나 ‘나라에 바치자고 키운 아들’은 세뇌를 위한 억지에 가깝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 즐거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즉 희생하는 어머니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통념에 비춰볼 때 자녀를 제물 삼는 어머니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아들에게 있어 존재의 근원인 어머니가 일본을 내 나라로 표현한 것은 지극히 잔인한 모순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섭리임에도 가사에서는 어머니의 입을 빌어 일본을 위한 죽음을 최우선적 가치로 선언함으로써 전통적 충(忠)과 효(孝)의 개념을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아들의 참전과 죽음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대의명분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어머님의 편지를 앙가슴에 품고 가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진군 삼천리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눈이 오면 눈에 얼며/ 병정으로 죽는 것이 소원이었소
 (대사)어머니 어머니 이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결사대로
 떠나는 이 밤, 어머니의 편지를 안고서/ 달빛이 쏟아지는 참 대숲으로 뛰어듭니다/
 피에 젖은 적삼 하나 받으시거든 / 내 아들 잘 싸웠다 사랑해주시옵소서
 살을 만져 보아도 어머니 살아있소 / 뛰는 맥을 짚어 보아도 어머니 핏줄/
 이 아들의 몸을 던져 나라님께 바친 뒤에/ 피에 젖은 적삼 하나 보내오리다
 - 이가실 작사, 고하정남 작곡, 이규남 노래<군사우편(1942)>

화자는 병정으로 죽는 것이 소원이었고 자기 죽음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화자의 중심에는 ‘어머님의 편지’가 있다. 고된 전쟁의 상황을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근거는 ‘어머님의 편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의 몸과 피는 어머니의 살과 피로부터라는 존재의 근본을 언급한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우선시 되는 존재는 바로 ‘나라님’이다. ‘이 아들의 몸을 던져 나라님께 바친 뒤에 피에 젖은 적삼 하나 보내오리다’라는 노랫말처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보답은 고작 피에 젖은 적삼 하나일 뿐, 아들은 자신의 신명(身命)을 오로지 나라님, 즉 천황으로 대변되는 일본에 바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어머님 전에 이 글월을 쓰옵노니/ 병정이 되온 것도 어머니 은혜/ 나라에 바친 목숨 환고향 하올 적엔/ 쏟아지는 적탄 아래 죽어서 가오리다
 어제는 황야 오는 날은 산협 천 리/ 군마도 철수레도 끝없이 가는/ 너른 땅 수천 리에 진군의 길은/ 우리들의 피와 뼈로 빛나는 길입니다
 어머니 전에 무슨 말을 못 하리까/ 이 아들 보내시고 일구월심에/ 이 아들 축원하사 기다리실 제/ 이 얼굴을 다시 보리 생각은 마음소서
 -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아들의 혈서 (1942)>

〈아들의 혈서〉 역시 어머님보다 나라, 곧 일본에 우선 가치를 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혈서’라는 어휘를 통해 전장에서 곧 흘리게 될 피, 나아가 일본을 위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아들’과 ‘어머니’라는 혈연관계는 화자의 결단과 결의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하루하루 기다릴 어머니의 감정과 기대를 차단하기라도 하듯 ‘이 얼굴을 다시 보리 생각은 마음 소서’라는 가사처럼 아들은 끝까지 매몰차고 냉정할 뿐이다.

상처의 붉은 피로써 보내신 글월인가 한 자 한 맘 맺힌 뜻을 울면서
 쓰셨는가/ 결사대로 가시던 밤 결사대로 가시던 밤 이 편지를 쓰셨네
 세상에 어느 사랑 이 사랑을 당할손가 나라님께 바친 사랑 별간고 해와
 같아/ 철조망을 끊던 밤에 철조망을 끊던 밤에 한목숨을 바쳤소
 한목숨 넘어져서 천병만마 길이 되면 그 목숨을 애끼리오 용감한 님이
 시여/ 이 안해는 읍니다. 이 안해는 읍니다. 감개무량 읍니다.

-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이화자 노래 〈결사대의 아내(1943)〉

〈결사대의 아내〉는 ‘결사대로 가시던 밤’, ‘철조망을 끊던 밤에’, ‘이 안해는 읍니다’ 등 강조를 위해 반복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별, 죽음, 눈물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아내의 감정은 곧 나라님, 즉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편의 용감함에 대한 ‘감개무량’으로 귀결된다. 즉, 일본을 위해 아들을 바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전장에 남편을 보낸 아내의 본분 역시 일본을 위한 남편의 뜻을 기리고 찬양하는 것임을 이 노래는 의도하고 있다.

이처럼 군국가요에서는 아들(혹은 남편)의 목숨보다 일본을 위한 죽음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혹은 아내)를 통

해 일본제국과 천황을 위한 순교(殉敎)를 독려하고 있음이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어머니와 아내의 고백은 식민치하 조선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써, 남편과 아들의 뜻을 이어 국가에 충성하며 전사(戰士)를 양육함이 본분임을 주입한다는 의도를 띤 선동이다(이은진, 2018 : 101-102).

가장 가까운 혈육인 어머니 혹은 아내를 통해 참전과 죽음을 독려하고 찬양하는 가사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식민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제국의 전쟁 소모품으로 변질·세뇌한다는 점에서 군국가요의 잔인함이 드러난다.

2.3. 조국을 위한 순국(殉國)의 추모

광복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국토를 잿더미로 만듦과 동시에 전 국민에게 죽음을 처절하게 체험케 했다. 군인으로 참전한 아들이자 아버지, 형제 중 다수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남겨진 가족은 전쟁으로 인한 혈육의 상실을 대중가요로 승화시켰다. 또한 실제 전장에서 동고동락하던 전우를 눈앞에서 잃은 경험은 이른바 ‘전쟁가요’라는 추모곡을 생산케 하였다. 전쟁가요는 국가를 위한 죽음을 추모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시기의 군국가요에 이은 시대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첫째, 식민지의 피지배 민족으로서 일본제국을 위한 강요된 죽음이 아닌, 반세기 동안 빼앗겼다가 되찾은 내 조국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란 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둘째, 노랫말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노래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작곡·작사자 혹은 가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

고 있어 깊은 진정성을 담고 있음이 나타난다. 셋째, 군국가요와 달리 전쟁가요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기릴 뿐, 화자가 직접 국가를 위해 ‘내가 죽겠다’라는 다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구를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 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잡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삼팔선
무너진다/ 흩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전우여 잘 자라(1950)〉

〈전우여 잘 자라〉는 이러한 조국을 위한 죽음, 즉 순국(殉國)을 추모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이다. 〈비내리는 고모령〉, 〈럭키 서울〉, 〈낭랑 18세〉 등 다수의 인기곡을 합작한 작사가 유호와 작곡가 박시춘이 9.28 서울 수복 이후 극적으로 재회하여(김장실, 2021: 158-160) 전쟁의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곡으로 국가적 가치, 임무가 우선시되는 전장의 현실 속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우를 기리고 있다. 이 곡은 발표 당시는 물론 전후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어린이들의 고무줄놀이 유희요(遊戱謠)로까지 즐겨 불린 국민가요이다(이영식, 2012:209-211). 전사한 전우의 시체를 넘어 끝까지 전진,

승리하여 전우의 목숨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는 굳은 결의를 강조한 ‘시체’, ‘원한’, ‘피’ 등 자극적인 어휘와 달리, ‘꽃잎’, ‘들국화’, ‘꽃’, ‘별’ 등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순국의 고결함을 드높이고 있다.

넘게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
소/ 가신 뒤에 임의 뜻은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 길에
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엔 즐거움이 넘칩니다.

넘게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옵기에/ 태극기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었
소/ 가신 뒤에 제 갈 곳도 임의 길이니/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두운 밤하늘
에/ 달과 별을 바라보며 무운장구 비읍니다

- 유호 작사, 손목인 작곡, 심연옥 노래 <아내의 노래(1951)>

아내가 남편을 사지로 보내면서 ‘즐거움이 넘칩니다’라고 표현한 <아내의 노래>는 당시 전쟁의 참상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를 우선시하는 왜곡된 가사는 진정성의 측면에서 억지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6.25 전쟁은 북의 공산주의에 대항한 첨예한 이념대결의 현장이었기에 당시의 남한 사회에서 용인받아 불릴 수 있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검열 작업 - 외적 검열이든, 혹은 창작자의 자발적인 검열이든 - 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의 가사를 담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이영미, 1998: 109).

이 노래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일제 강점기 군국가요의 구조와 표현양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혈연보다 우선시되는 국가의 가치, 남편의 - 예견된 - 죽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내

의 강인한 의지 등에서 군국가요와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은진, 2018: 103-134). 이는 대중문화의 특성상 기존의 유행과 흐름은 이후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모방·변형·재생산은 진보와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에 이러한 형태의 작품이 발견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영광의 길’, ‘빛나는 길’, ‘등불’이라는 가사를 통해 조국을 위한 명예로운 희생을 추모하고 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넘어 떠난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삿줄로 두 손 꽂꽂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선달 지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십 년이 가고 백 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고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이해연 노래〈단장의 미아리 고개(1955)〉

1925년 현대적 인구통계가 시작된 이래 한국전쟁 시기는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⁹⁾ 이처럼 전쟁은 대중이 죽음을 자주, 직접, 생생히 보게 했고, 그러한 체험의 절절한 감정은 노래로 재현되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딸이 미아리 고개에서 숨을 거둔 작사가 반야월의 체험과 그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와 민간인 학살 사건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탄생한 노래이다(박찬호, 2009: 144-146; 강준만, 2004: 131). 화자

9) 일제 강점기에는 연간 약 32 ~ 41만 명 사이였으나, 1950년 약 60만 명, 1951년 약 58만 명, 1952년 약 4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약 2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는 납북당한 남편을 그리는 아내로, ‘철사줄에 두 손 묶여 맨발로 절며 끌려간’ 남편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 노랫말 속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나, 납북당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체재와 이념에 반하여 자유대한의 가치를 수호하는 편에서 있었음을 나타내며, ‘십 년이 가고 백 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라는 노랫말을 통해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곡은 표면적으로 아내로서 남편을 그리는 개인적인 애정과 그리움의 노래이지만, 그 내면에는 조국을 위한 순국의 추모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3. 나가며

죽음의 찬미로 시작된 한국 대중가요는 역사 속 질곡의 분기점마다 죽음에 대한 관점과 노래 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대중가요의 초창기인 1920~1930년대에는 나라 잃은 허무함을 개인적 사랑의 죽음에 투사한 순애의 탐닉으로 표현하였다. 노래에 보이는 표면적 주제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랑이지만 현세에서 이를 수 없는 사랑을 위한 종착역은 결국 죽음이다. 사랑하는 이를 따라 함께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룬다는 순애(殉愛)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군국주의가 심화하던 1940~45년에는 군국가요를 통해 천황을 위한 순교를 찬양하였다. 혈연관계보다 우선되는 일본에 대한 충성이 노랫말에 드러난다. 순애의 대상이던 연인이 충성의 대상인 국가(일본)로 치환되었다. 대상은 연인에서 국가로 변화하였으나, 그 대상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행위의 방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광복에서 6.25 전쟁을 경험한 시

기에는 국가를 위한 죽음을 추모한다는 점에서는 군국가요에 이은 시대적 연속성이 나타났고, 다음 세 가지 특기할 점을 가진다. 첫째, 일본제국을 위한 강요된 죽음이 아닌, 내 조국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란 점이다. 둘째,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작곡가, 작사가, 가수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 이전 시기보다 진정성을 갖는다. 셋째,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기리지만 화자가 직접 국가를 위해 죽겠다는 다짐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중가요가 그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대중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중가요 속 죽음의 함의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확인한 점은 본 연구의 성과이다. 비록 3~4곡의 노래만으로 시기별 죽음을 노래한 대중가요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별 기념비적인 노래에 담긴 죽음에 관한 시대적 함의와 그 변화 양상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한 것은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대중가요가 현실을 재현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죽음을 소재로 한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한국 대중가요 전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를 확장한다면 사랑이나 이별 등의 주제와 죽음을 주제로 한 노래의 특성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우듯, 코로나의 창궐로 죽음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기에 대중가요가 죽음을 노래해온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변화는 물론, 사회가 인식하는 죽음의 단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준만, 2004. 『한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사상사.
- 김창남, 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올아카데미.
- 박찬호 · 안동림 역, 2009. 『한국가요사1』, 미지북스.
- 박찬호 · 안동림 역, 2009. 『한국가요사2』, 미지북스.
- 손민정, 2009. 『트로트의 정치학』, 음악세계.
- 이동순, 2007. 『번지없는 주목』, 도서출판 선.
- 장유정, 2006. 『오빠는 풍각쟁이야』, 민음사.
- 장유정 · 서병기, 2015.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성안당.
- 菅野聰美, 2001. 『消費される戀愛論-大正知識人と性』, 東京: 青弓社.
- Dell, Helen. and Hickey, Helen M. 2017. *Singing Death: Reflections on Music and Mortality*, Routledge.
- Labov, William. 2010,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ume III: Cognitive and Cultural Facts*. Oxford: Wiley-Blackwell.

2. 학술지 논문

- 강민구, 2019. 「IMF 외환위기사 한국 펑크 록 노랫말의 분노 표출 양상 연구 - 크라이넛, 노브레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 70, 87-108.
- 길진숙, 2009.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속의 ‘서울-모던-여성’의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57-96.
- 김세훈 · 이영주 · 이환수, 2019. 「육군 부대가의 구조언어학적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75(2), 121-138.
- 박제홍 · 김순전, 2015. 「일제강점기 군국가요 수용과 변용 양상」, 『일본어문학』, 65, 315-341.

- 서지영, 2010. 「근대적 사랑의 이면: ‘정사’(情死)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9, 297-319.
- 오은아, 2020. 「1930년대 중반 여성 사회주의자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참여와 역할 -‘하우스키퍼’에서 ‘카페 여급’까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4, 191-227.
- 오지현 · 나주리, 2018. 「바로크 음악의 ‘바니타스」, 『서양음악학』, 21(2), 11-42.
- 이승희, 2006. 「기표로서의 신파, 그 역사성의 지형」, 『한국극예술연구』, 23, 9-43.
- 이영식, 2012. 「홍천군 산간지역 유희요의 세대별 존재 양상」, 『한국민요학』, 35, 197-221.
- 이은진, 2018. 「일제 강점기 군국가요와 도구화된 여성성」, 『음악학』, 35, 69-108.
- 이지연 · 신수진. 2004.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25-55.
- 이향천, 2015. 「언어 변화의 양상과 원인」, 『배달말』, 57, 35-63.
- 장미경, 2015.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불린 엔카(演歌) 고찰 -고가 마사오(古賀政男)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5, 57-74.
- 장소원, 2015. 「한국 대중가요 가사의 문체 분석」, 『텍스트언어학』, 39, 283-311.
- 장유정, 2009. 「한국대중가요의 전개 양상 고찰 - 1945 - 1960년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205-234.
- 정기인, 2020. 「떠나간 남성과 남겨진 여성 - 1980~2010년대 여성 솔로 가수의 이별 노래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화와 기존 텍스트의 활용」, 『대중음악』, 26, 71-96.
- 정헌이, 2011. 「죽음의 미학 - 포스트모던 ‘바니타스’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30, 69-100.
- 조장원, 2018. 「한국 대중음악 수용자 연구 - 일제강점기부터 제5공화국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56, 195-223.

- 조형근, 2017. 「1930년대 후반~195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을 통해 본 제국의 기억과 망각」, 『사회와 역사』, 116, 217-255.
- 추병식, 2015.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탈근대적 변화: 신세대 문화 이전과 이후의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111-137.
- Walter, Tony. 2012. “How People Who are Dying or Mourning Engage With the Arts”. *Music and Arts in Action* 4(1): 73-98.

3. 학위 논문

- 장미현, 2020. 「2000년대 이후 트로트 가사에 나타난 호칭·지칭어 표현의 변화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Abstract

Death in Korean Popular Songs :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the 1920s to 1950s

Kim, Saehoon · Yu, OkRa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Baekseok Culture University Practical Music Department Lecturer)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eaning of death has changed in early Korean popular songs. As a representation of social change and popular sentiment, such songs have constantly changed the meaning of death throughout history. The view of death and the way it is sung has also changed at different points in the 100-year history of Korean popular songs, which began as a praise of death. The nihilism of the loss of sovereignty during the emergence of popular song was expressed in songs of personal mourning, martyrdom for the emperor during the period of increased militarism, and mourning for those who died for their country during the period from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As we learn about the future from the past, a retrospective of the history of popular songs about death at a time when the coronavirus pandemic is forcing us to reflect on death more seriously will be an opportunity to observe not only the changes in public interest in death, but also the cross-section of death as perceived by society.

Key words : Korean popular music, Popular song, Death, History, Coronavirus pandemic.

논문 투고일: 2023년 08월 31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3년 11월 0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